

### III. 우리나라 보험산업 주요지표 중장기 전망

제II장은 선진국들의 최근 보험환경 및 시장의 변화를 검토하고 종 목별 보험료의 규모와 보험환경 사이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향후 보험시장 여건은 금융시장의 성장, 고령화에 따른 보험 수요 확대 등으로 성장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Pooled OLS와 패널 분석을 통해서 선진국의 보험수요와 환경 사이의 계량적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보험 수요 방정식을 추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이 장은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환경과 시장규모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한계를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10년 장기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밝힌다. 또한 경제 및 금융시장의 경우 구조변화가 잦아 일정한 장기 추세를 잡아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장기 전망의 계량적 타당성을 검증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확보 가능한 자료로부터 추정된 계수와 일정한 미래에 대한 가정 등을 이용하여 장기전망 작업을 수행하는 선에서 연구를 마무리했음을 밝혀둔다.

제1절에서는 국내보험시장 전망을 위해 사용할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 제2절에서는 인구구조, 경제성장, 의료비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수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실시된 환경변수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험 종목별로 중장기전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장은 우리나라의 보험환경 및 종목별 보험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통계지표를 기초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구조 및 노동력과 관련된 지표는 통계청, 그리고 경제성장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의료비 자료의 경우 일관된 기준의 시계열 확보하기가 어려워 OECD 통계를 이용하였다. 인구구조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2050년까지의 인구추계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재성장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잠재성장률은 총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자본스톡, 노동력 등 비교적 추정이 용이한 생산요소와 이들에 의해 설명이 어려운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은 이들 요소에 대한 전망과 인위적인 가정을 더해 산출되었다. 의료비의 경우 총의료비에 대한 단일방정식과 더불어 공공의료와 관련한 국가 정책에 일정한 가정을 부과하여 추정에 활용하였다.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보험환경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개별방정식을 통해 방정식의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전절에서 산출한 보험환경에 대한 전망치를 대입함으로써 미래의 보험료를 예측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 2. 주요 경제 및 환경변수 중장기 전망

### 가.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가 보험환경의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구조 자체의 변화가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노후 및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나 은퇴연령 인구의 비중 등은 보험수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구조는 기본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험환경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본을 결정짓는 핵심변수이며, 생산가능인구 대비 유년 및 노년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비는 저축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저축률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투자는 자본스톡의 규모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보험환경을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향후 2050년까지 인구구조 및 규모에 대한 추계를 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에 대한 별도의 전망을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를 보험수요와 관련지어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체부양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2)</sup>. <그림 III-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유년부양비는 하락하고 노년부양비는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유년부양비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전체 부양비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전체부양비가 36.6%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며, 이후 노년부양비의 상승속도가 유년부양비를 추월하면서 전체 부양비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다. 따라서 본보고서의 전망 기간인 2005~2015년은 사실상 부양비가 하락하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의 부양비 변화는 노년부양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유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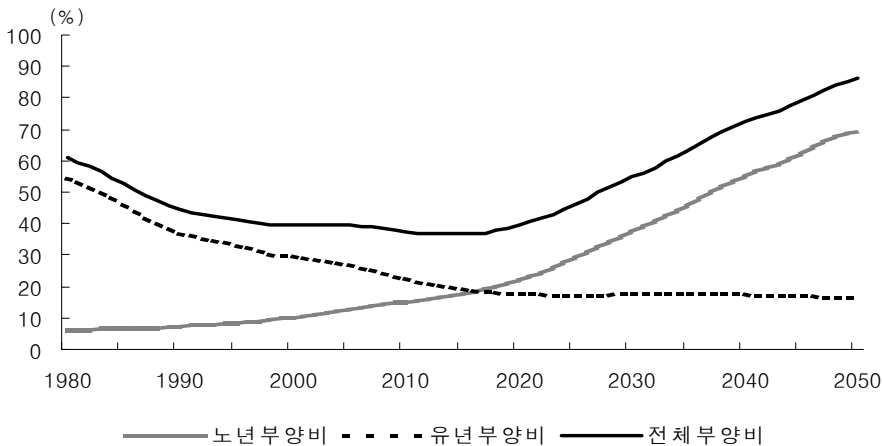
22) 전체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  $(0 \sim 14 \text{세인구}) / (15 \sim 64 \text{세인구}) \times 100$

노년부양비 =  $(65 \text{세이상인구}) / (15 \sim 64 \text{세인구}) \times 100$

부양비의 하락으로 전체 부양비가 하락하면서 저축여력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보험이나 증권 등 금융산업이 여타의 부문에 비해 급속히 팽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1> 우리나라의 부양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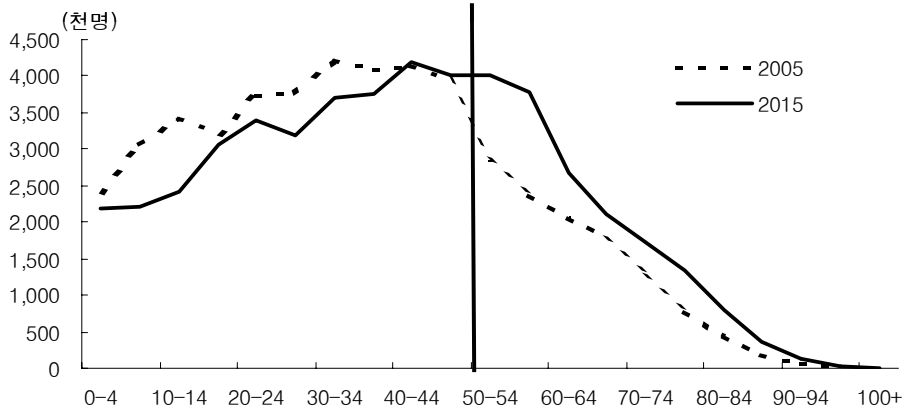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둘째로, 연령별 인구변화도 보험수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5년 생까지를 포괄하는 약 20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에 대한 밀집도가 매우 높다<sup>23)</sup>. 문제는 2005년에 1955년생이 50대, 즉 은퇴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은 은퇴연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향후 10년 동안 50대 인구는 2005년 전체의 10.9%에서 2015년 15.9%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은퇴와 관련된 각종 보험수요, 즉 노년의 연금이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3) 보험개발원 주간보험이슈 제79호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4개 연령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그림 III-2>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2005~2015년)



자료: 통계청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부문의 상대적인 빠른 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은퇴수요의 확대가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를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역량에 따라서는 고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나.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경제내의 모든 산업을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보험산업에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개념은 잠재GDP와 이의 성장률을 의미하는 잠재경제성장률이다. 따라서 본고는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았다.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아래와 같이 Cobb-Douglas 1차 동차 함수를 가정하였다.

$$Y_t = A_t L_t^\alpha K_t^\beta \quad \alpha + \beta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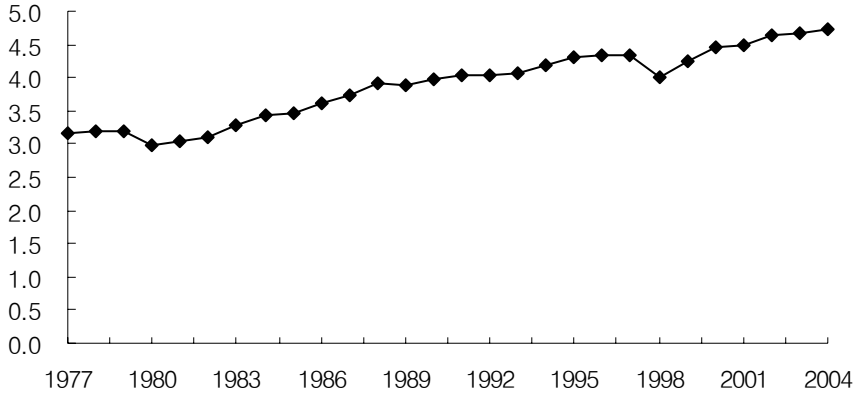
Y는 잠재GDP,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력, K는 자본스톡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서 노동력은 경제활동인구를 사용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한 개념이다<sup>24)</sup>. 자본스톡은 경제활동인구처럼 공식적인 경제지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일정한 가정에 의해서 특정시점의 자본량을 산출하고 이후 시점의 자본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본의 추가를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자산형성)과 일정한 수준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였다<sup>25)</sup>. 이 보고서의 경우 통계청의 국부 자료에서 1977년 순자산액을 해당 시점의 자본량으로 가정하고 이를 해당년도의 총고정자본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2000년 기준 실질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다음으로  $\alpha$  및  $\beta$ 를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들 두 계수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분배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국민계정 상의 소득분배율이 평균적으로 노동은 0.6, 자본은 0.4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들 숫자를 계수로 적용하였다. 이제 잠재GDP에 대해서 자본과 노동이 설명하고 난 나머지는 총요소생산성인 A에 의해서 설명되게 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그림 III-3>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로 추정되었다.

24) 실제로는 자연실업률을 적용하여 노동력을 산출하여야 하나 잠재실업률이 사실상 상수임을 감안하여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25) 관련 연구들의 일반적인 자본스톡 감가상각률은 대부분 6~7%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연구는 6%를 가정하였다.

<그림 III-3>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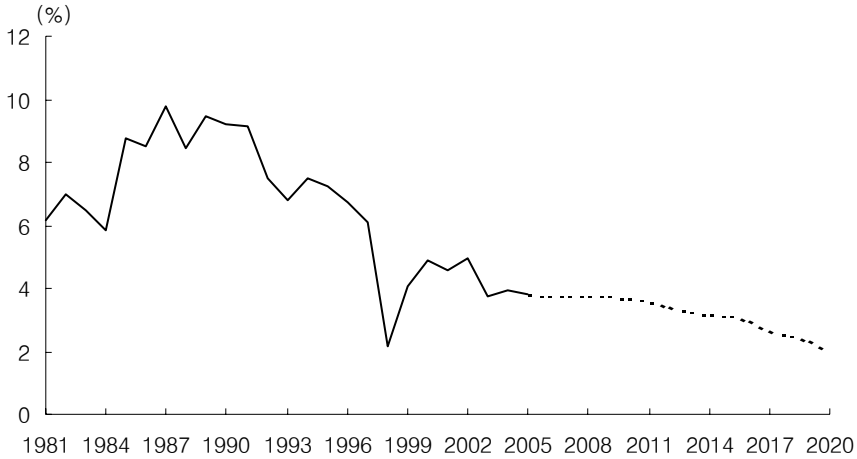


향후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그리고 노동량에 대한 전망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이 연구는 우선 자본량은 장기적으로 저축 = 투자 = 총고정자본형성이란 가정 하에 부양비의 변화를 기초로 저축률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규모를 산출하여 미래의 자본량을 추정하였다. 노동량은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에 대해 노동참가율에 일정한 가정을 더하여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은 <그림 III-3>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승세가 향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하였다<sup>26)</sup>.

생산요소들의 변화에 기초한 잠재성장률의 추정과 향후 전망은 <그림 III-4>와 같다. 과거의 추이는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저투자 국면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5년 이후 4% 전후 수준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는 3%대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 경에는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sup>27)</sup>.

26) 자본스톡과 생산가능인구의 추이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나, 노동참가율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정이 향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lt;그림 III-4&gt;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전망



#### 다. 의료비 및 자동차등록대수

여러 보험종목 중에서 특히 개인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중 가장 주된 것은 생존, 사망, 질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에 대한 향후 전망은 질병을 담보하는 개인보험의 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장의 OECD회원국에 대한 의료비 분석에서는 의료비가 소득 및 부양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노년부양비와 국민소득을 중요 변수로 하여 의료비에 대한 방정식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추정 과정에서 오차항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Durbin-Watson검정을 실시한 후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결과는 총의료비와 노년부양비 및 국민소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노년부양비가 빠

27) 보험산업 전망에는 실질성장보다는 경상성장이 중요한 변수이며 따라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향후 2.7%(2002, 2003, 2004년의 평균)수준으로 적용하였다.



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부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log(\text{총의료비})_t = -1.29 + 0.85\log(\text{GDP})_t + 1.15\log(\text{노년부양비})_t \quad (\text{식III-1})$$

(-2.33) (8.50)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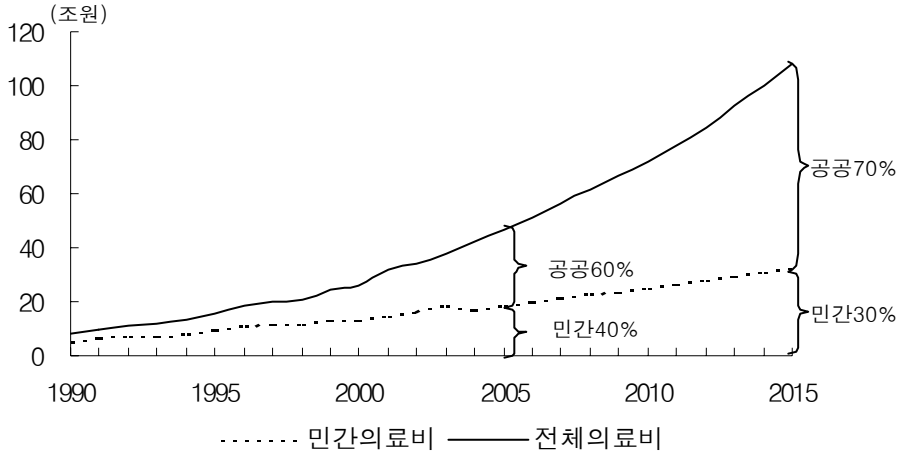
$$R^2 = 0.9974 \quad \rho = 0.515 \quad \text{D.W.} = 1.859$$

-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rho$ 는 Cochrane-Orcutt과정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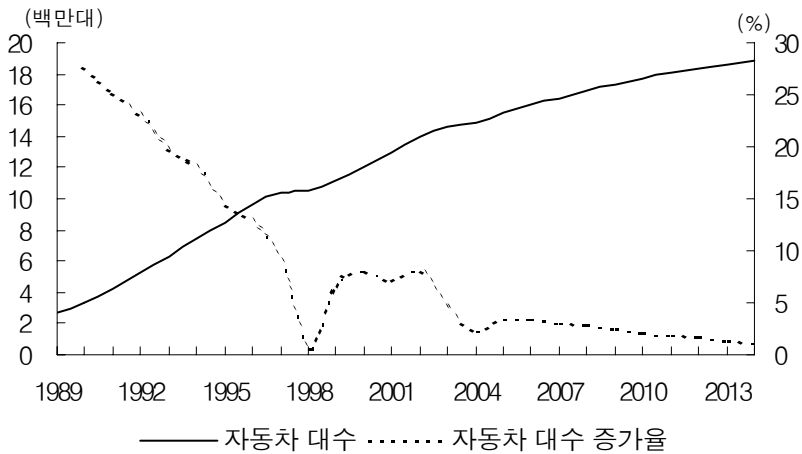
(식III-1)과 같이 모수를 추정된 후 예측을 실시한 결과 의료비는 향후 2015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전체의료비에서 공적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제외한 민간의료비의 규모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공의료비는 다분히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을 변수간의 통계적 성격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향후 공공의료비의 비중을 2008년까지 전체 의료비의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내용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타당성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공공의료비의 비중이 단계적으로 70%까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전체의료비는 2005~2015년 기간 중 연평균 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 의료비는 공공보험의 비중 확대에 따라 증가율이 연평균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론 민영건강보험 시장이 초보단계에 있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이다.

&lt;그림 III-5&gt; 의료비 추이 전망



&lt;그림 III-6&gt; 자동차 대수 추이 전망



자동차보험의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자동차등록대수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자동차시장은 심각한 침체국면을 보이면서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율 둔화현상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예측 방정식을 추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sup>28)</sup>. <그림 III-6>은 그 결과를 제시하

고 있으며 자동차보유대수는 2015년까지 약 2%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보험산업 주요지표 중장기 전망

#### 가. 생명보험

우선 생명보험에 대한 전체 및 종목별 전망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 종목별 전망치에 대한 방법론과 근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종합전망

생명보험 산업은 경상GDP 성장률의 하락, 노년부양비의 증가, 기대여명의 증가 등과 함께 금융겸업화, 은퇴시장에서의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 등으로 임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생명보험산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빠른 은퇴연령 편입과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인식의 확산으로 은퇴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성 보험을 주축으로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의 종목별 성장은 은퇴를 대비한 상품수요의 확대로 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수요가 생명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개인생명보험의 성장은 연평균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보험은 2005년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9.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은 회귀방정식이 전망할 수 있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회귀방정식은 과거의 경제, 금융,

---

28)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2005. 11.

보험관련 자료로부터 각 보험지표를 전망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생존, 사망, 질병 등의 각 생존리스크와 사망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종목사이에 경계가 모호하고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이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 정부의 과세정책, 보험설계사들의 선호에 따라 주력 판매상품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종목의 고유한 속성을 통해 얻어지는 종목별 전망은 곤란했다.

향후 2015년까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0년간 연평균 8.2% 성장하며 경상GDP 성장률을 2%p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약 134조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년까지는 개인보험보다는 퇴직연금시장의 형성에 따른 단체보험 시장이 연 11.6%씩 성장하면서 비중이 확대되고, 개인보험은 국민연금을 보충하고자 하는 은퇴세대의 증가에 따라 저축성보험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9.9% 성장할 것이나 이후부터는 2015년까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각각 6.2%와 6.5%로 하락해, 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이 전망된다.

<표 I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FY1990	120,333	31.3	37,397	32.8	151,729	31.7
FY1995	274,937	18.0	77,944	15.8	352,880	17.5
FY2000	403,371	8.0	117,817	8.6	521,188	8.1
FY2004	480,140	4.5	57,366	-16.5	537,506	0.8
FY2010(F)	861,815	9.9	124,995	11.6	986,809	10.1
FY2015(F)	1,164,808	6.2	171,041	6.5	1,335,849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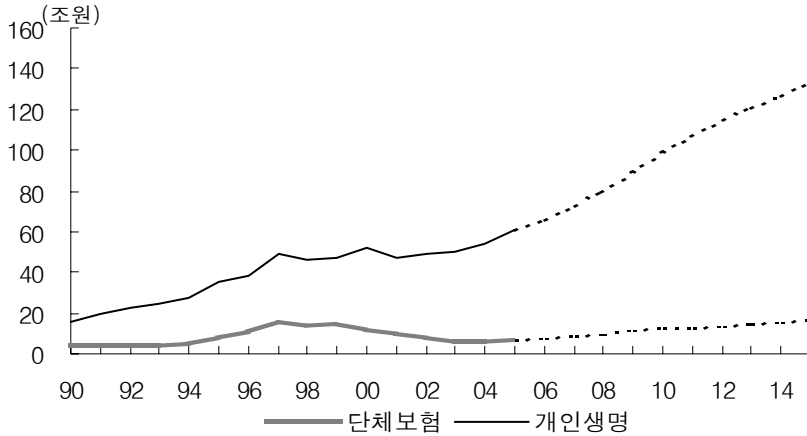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향후 경상GDP 대비 침투도를 살펴보면, 199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생명보험침투도가 2005년 7.4%를 저점으로 하고 2010년에는 8.7%에 달하고 2015년에는 8.9%로 확대될 것이 전망된다.

<그림 III-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구성추이를 살펴보면 세계혜택의 축소와 보험사의 배당보험축소정책 및 금리리스크회피를 위한 보험사들의 축소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어 왔던 개인보험 저축성보험이 2004년 40.4%의 구성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46.5%, 2015년에는 5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 및 CI보험시장의 포화와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 40.8%, 2015년에는 34.9%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sup>29)</sup>.

29) 여기서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말하며, 보장성보험은 사망보험을 말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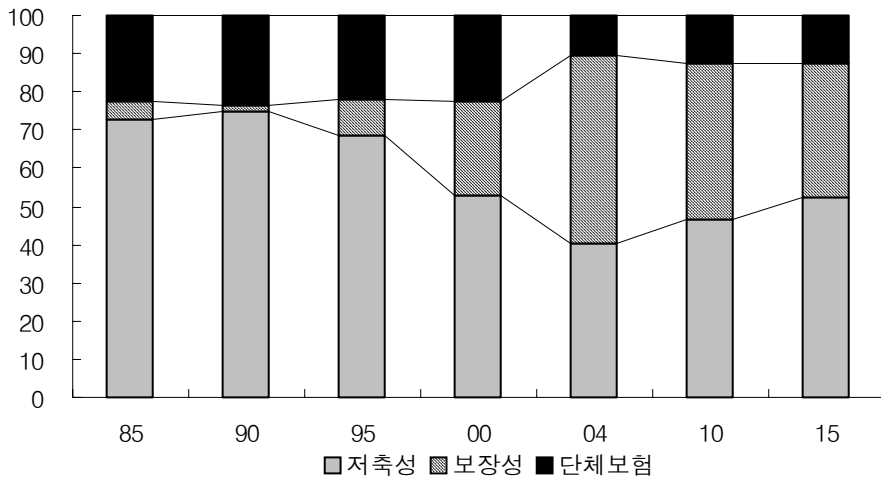
&lt;표 III-2&gt;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구 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개인보험	저축성	75.0	68.7	53.0	40.4	46.5	52.3
	보장성	1.3	9.2	24.4	48.9	40.8	34.9
단체보험		23.7	22.1	22.6	10.7	12.7	12.8
생명보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lt;그림 III-8&gt;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 가) 개인보험

개인보험료 전체에 대해 방정식을 추정하여 전망한 후 종목별 비중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앞서 주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5년평균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경우 의료비지출, 사회보장지출, 및 인플레이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자료를 사용한 모형에서는 국민소득, 부양비, 의료비지출, 사회보장지출, 인플레이션 등 거의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시계열모형을 설정할 때에는 이들 변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이 매우 커서 독립변수와 상관성이 높은 특정 변수가 나머지 독립변수를 지배하여 회귀계수가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제반 특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다음의 (식Ⅲ-2)와 같은 모형을 도출하였다.

$$\log(\text{개인생명보험료})_t = 27.33 + 0.92\log(\text{경상GDP})_t - 4.68\log(\text{부양비})_t - 1.17\log(\text{인플레이션})_t$$

(2.56) (2.54) (-2.17) (-1.17) (식Ⅲ-2)

$$R^2 = 0.9892 \quad D.W. = 1.818$$

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이러한 모형에 전망된 환경변수를 대입하여 개인보험의 보험료를 전망하였다. 생명보험의 개인보험은 FY2005~FY2015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8.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FY2010까지 5년간은 9.9%로 견조한 성장을 하는 반면, 이후 FY2015까지는 6.2%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sup>30)</sup>. 개인보험은 생명보험에서 비중이 가장 큰 보험분야

로 인구의 고령화, 기대여명의 증가, 노년부양비의 증가 등에 따른 생존리스크의 지속적 확대에 은퇴세대의 증가와 은퇴대비 수요에 힘입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보험 중 저축성 보험은 개인의 저축자산을 구성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의 정부정책, 수익성, 안정성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정부의 개인세제혜택의 증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민감해지면서 의식 있는 보험소비자들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시장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경제수준도 선진국에 진입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은퇴이후의 생존리스크가 부족한 국민연금제도를 보충하는 형태로 발전될 전망이다.

사망보험은 최근까지 종신보험과 CI보험, 기타 건강보험이 보험사의 마케팅과 순수보장성보험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성장되어 왔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강보험의 의료비보장률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또한 유럽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지향하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보장률이 70%로 증가할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성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공공정책이 확대되고 보험사들의 판매정책이 불안한 상황에서 개별종목의 성장을 모형을 통한 방정식에 의해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변수와 보험관련 변수간 상관관계에서 도출되는 개인보험수요에 대해서 선진국수준의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 구성비를 적용할 경우, 저축성보험은 FY2010까지 연평균

---

30) 2010년까지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동 기간 중 부양비의 하락속도가 크기 때문이다. 부양비의 하락폭을 5년 단위로 보면 2000년 이후 5년간 0.2%p, 2005년 이후 2.0%p, 2010년 이후에는 0.7%p로 나타나 2005~2010년 사이에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기간 중 저축여력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9%, 이후 FY2015까지는 8.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장성 보험은 FY2010까지 연평균 7.0%, 이후 FY2015까지 연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sup>31)</sup>.

<표 III-3>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저축성		보장성		개인보험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FY1990	118,288	32.4	2,045	3.6	120,333	31.3
FY1995	242,510	15.4	32,426	73.8	274,937	18.0
FY2000	276,124	2.6	127,246	31.4	403,371	8.0
FY2004	217,168	-5.8	262,971	19.9	480,140	4.5
FY2010(F)	459,231	12.9	402,584	7.0	861,815	9.9
FY2015(F)	698,885	8.8	465,923	3.0	1,164,808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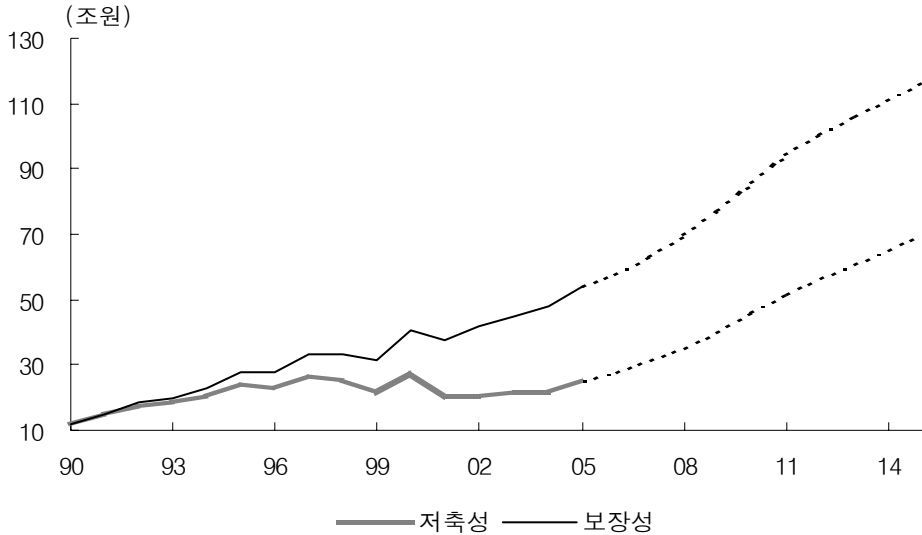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개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사이의 비중은 공적건강보험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과 크게 발달한 영국 그리고 그 중간단계인 독일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lt;그림 III-9&gt;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단체보험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퇴직보험(신탁)을 대체하는 형태로 도입되나 이전의 종업원퇴직보험이나 퇴직보험과 같은 단순한 보험상품의 일종이 아닌 전 산업체 종업원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형태로 도입된다<sup>32)</sup>.

퇴직연금제 시행에 따라 매년 보험권으로 유입되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전망은 과거 종업원퇴직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참고하였으나 종업원퇴직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전환되었던 당시는 기존 종업원퇴직보험의 적립금이 해약과 함께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과대 계상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퇴직보험이 도입되었던 경우와 여

32) 퇴직연금제도 시행이후 퇴직보험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미 가입된 경우 향후 약5년 동안은 퇴직보험으로 인정된다.

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당시와 같은 급격한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모형을 통한 전망은 곤란하므로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전망하였다. 즉, 매년 근로자증가율, 평균임금상승률, 퇴직연금 사외적립률, 각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가정을 통해 2015년까지의 보험권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유입금액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누고 2005년 월평균 임금으로 매년 퇴직적립금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변화된 사외적립률과 과거 추세를 고려한 가입율을 추정하고 2009년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추정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퇴직적립가능금액을 추정하였다<sup>33)</sup>. 그리고 퇴직적립가능금액을 퇴직보험료로 보고 초기 강세를 떨 것으로 가정한 보험권으로의 유입액을 결정하고 다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점유율을 과거추세와 장래경향을 추정함으로써 FY2015까지의 생명보험 퇴직연금보험료를 산출하였다<sup>34)</sup>.

이러한 시나리오가 적용될 경우, 단체보험<sup>35)</sup>은 FY2010까지 11.6%의 성장이 전망되며, 이후 성장여력이 감소하여 FY2015까지 6.5%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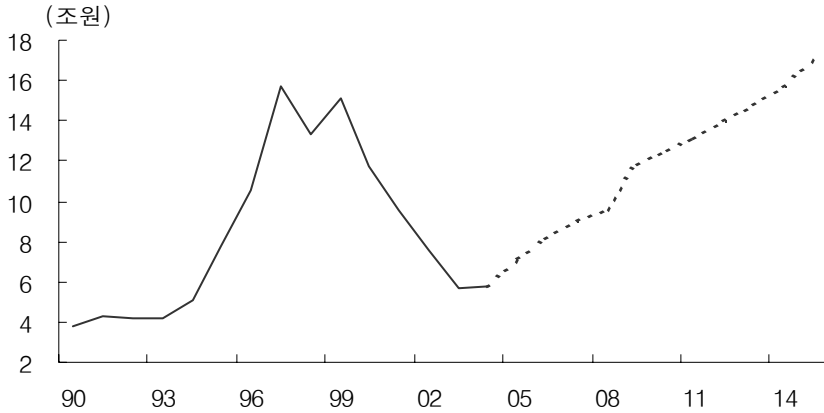
---

33)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월평균임금 그리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를 통해서 가입률을 추정하면 그 규모가 90%를 상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가입률을 실체가입률이라기보다는 노동과 보험 지표 사이의 조정계수라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34) 은행권의 퇴직신탁을 고려할 경우 FY2004 보험과 은행의 퇴직보험 점유율은 85 : 15 수준으로 추정되나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권의 선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장기적으로 65 : 35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35)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수입보험료와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향후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과도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lt;그림 III-10&gt;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전망의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 종목별로 방정식의 추정 결과 등 전망의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 1) 종합전망

금융겸업화, 인구의 노령화,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대, 퇴직연금제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손해보험 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손해보험 산업은 전통적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손해보험 및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즉,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전통적 종목의 성장률은 정체되거나 둔화될 전망이며, 장기손해보험, 특종보험이 경상GDP 성장보다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며 손해보험 전체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경상GDP에서 장기손해보험 및 특종보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노령화, 노인부양비 지출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상해, 건강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즉, 장기상해보험 및 장기건강보험, 특종보험에서의 일반상해보험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정착되고 고객의 패키지상품 선호 추세로 종합보험의 성장도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배상책임보험의 꾸준한 성장도 특종보험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 원수보험료

FY2015에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어 연평균 7.2%의 성장을 시현한 결과 51조 3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10년간 손해보험 산업은 자동차보험과 특종보험 외의 일반 손해보험의 성장이 저조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손해보험 전체의 침투도는 2015년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즉, 자동차보험의 경우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FY2015에는 연평균 3.6%의 성장률로 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손해보험은 건강관련 시장 확대, 환급형 상품의 수요 증가로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종보험은 경상GDP 보다 빠른 11.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 밖에 화재, 해상, 보증보험은 4% 미만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lt;표 III-4&gt;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화재	2,215 (18.3)	3,782 (11.3)	2,755 (-6.1)	2,937 (1.3)	3,287 (1.2)	3,445 (0.9)
해상	2,856 (11.4)	4,532 (9.7)	4,344 (-0.8)	5,071 (3.1)	6,315 (3.5)	7,520 (3.6)
보증	2,853 (43.5)	7,002 (19.7)	6,021 (-3.0)	9,017 (8.4)	10,717 (3.3)	12,781 (3.6)
특종	2,108 (11.5)	6,071 (23.6)	11,143 (12.9)	21,181 (17.4)	39,879 (11.1)	67,342 (11.0)
일반계	10,031 (18.4)	21,386 (16.3)	24,263 (2.6)	38,206 (9.5)	60,199 (7.9)	91,088 (8.6)
자동차	17,729 (31.1)	50,103 (23.1)	64,983 (5.3)	85,208 (5.6)	107,911 (4.2)	125,410 (3.1)
장기	8,136 (46.3)	37,754 (35.9)	79,341 (16.0)	108,774 (6.5)	205,288 (10.3)	296,362 (7.6)
계	35,781 (28.8)	101,673 (23.2)	168,618 (10.6)	232,189 (8.3)	373,398 (8.0)	512,861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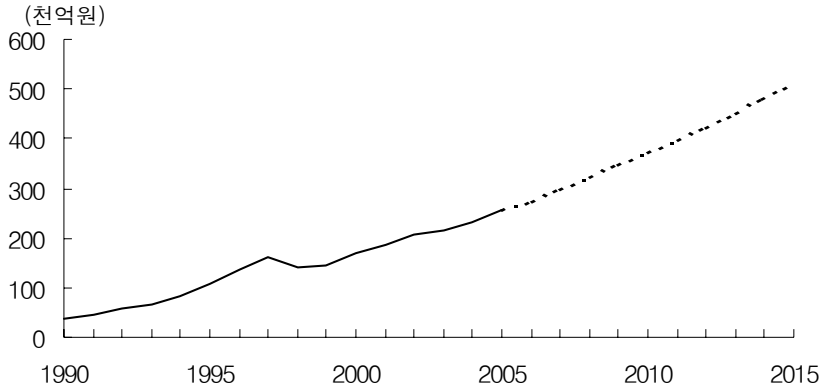
주: 1) 장기손해보험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임.

2) ( )는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향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점유율이 FY2010에 55.0%, FY2015에 57.8%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관련 상품, 환급형 상품에 대한 수요 외에도 2005년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 실적도 감안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시장 성장 둔화, 온라인 자동차시장 확대를 비롯한 가격 경쟁 심화로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20%대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일반 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점유율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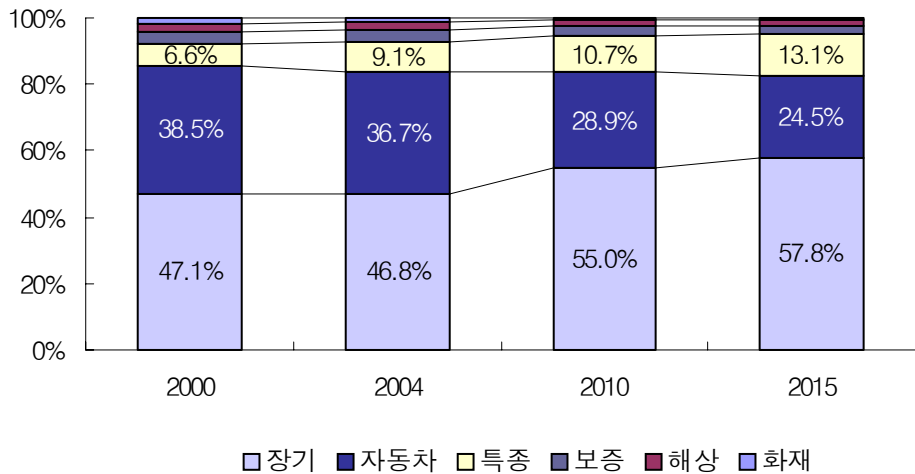
&lt;표 III-5&gt;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화재	6.2	3.5	1.6	1.3	0.9	0.7
해상	8.0	4.1	2.6	2.2	1.7	1.5
보증	7.9	6.4	3.6	3.9	2.9	2.5
특종	5.9	5.6	6.6	9.1	10.7	13.1
일반계	27.9	19.6	14.4	16.5	16.1	17.8
자동차	49.4	45.9	38.5	36.7	28.9	24.5
장기	22.7	34.6	47.1	46.8	55.0	5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lt;그림 III-12&gt;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 가) 화재보험

앞서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수요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는 1인당GDP였다. 그러나 이 역시 Random Effects Model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일반화하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시계열 데이터로 모형을 적합한 결과에서는 GDP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의 경우 주로 공장이나 아파트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므로 당해연도 자본스톡의 변화를 설명변수로 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화재보험 수요 방정식 (식III-3)은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보정하였다.

$$\log(\text{화재보험료})_t = 9.59 + 0.21\log(\text{경상GDP})_t + 4.49 \Delta\log(\text{자본스톡})_t \quad (\text{식III-3})$$

(1.51) (0.46) (2.83)

$$R^2 = 0.9729 \quad \rho = 0.838 \quad \text{D.W.} = 1.144$$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rho$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상기의 모형을 통해 전망을 실시한 결과 FY2005~FY2015까지 향후 10년간 화재보험은 연평균 0.86%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못하는 것은 화재보험 시장이 이미 성숙되었거나 시장 자체의 성장속도가 근본적으로 매우 느리기 때문일 것이다. 화재보험 시장의 정체는 계약자들의 포괄담보상품 선호 추세, 기업성 물건의 경우 패키지화된 종합보험 선호로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종합보험으로 이전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부보 대상 확대, 풍수해보험 도입

등 재해 관련 보험 시장의 확대에 따라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 가입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보험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

<표 III-6>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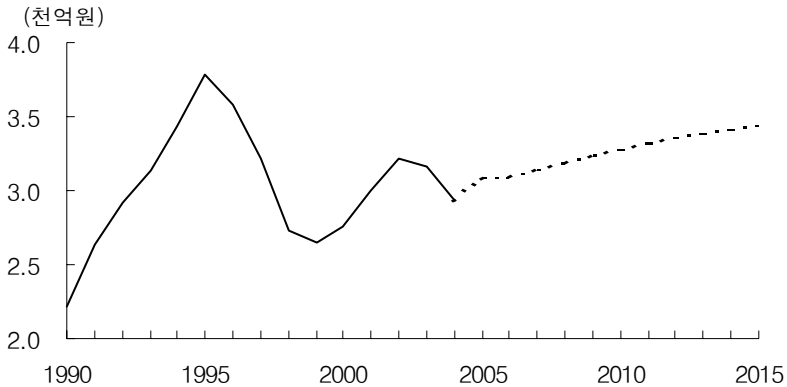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215	3,782	2,755	2,937	3,287	3,445
성장률	18.3	11.3	-6.1	1.3	1.2	0.9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해상보험

앞서 OECD 각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해상보험수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내 해상보험료 시계열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교역량 대비 해상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시간 추세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최종적으로 설정하여 중장기 전망

에 이용하였다. 시간 추세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 해상보험료의 증가율은 교역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log(\text{해상보험료}/\text{교역량})_t = 3.00 - 0.92\log(\text{time})_t \quad (\text{식 III-4})$$

(10.19) (-8.47)

$$R^2 = 0.7993 \quad \text{D.W.} = 0.555$$

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이와 같이 시간추세를 반영한 모형을 통해 예측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해상보험은 FY2005~FY2015까지 향후 10년간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해상보험은 경상GDP 대비 교역량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손해를 개선에 따른 효율인하 추세에 기인하여 경상GDP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외 재보험시장의 지배력이 크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전망치와 실적치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해상보험의 방정식은 D-W값 등을 통해서 계량적인 면으로 판단할 때도 불안정한 면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III-7>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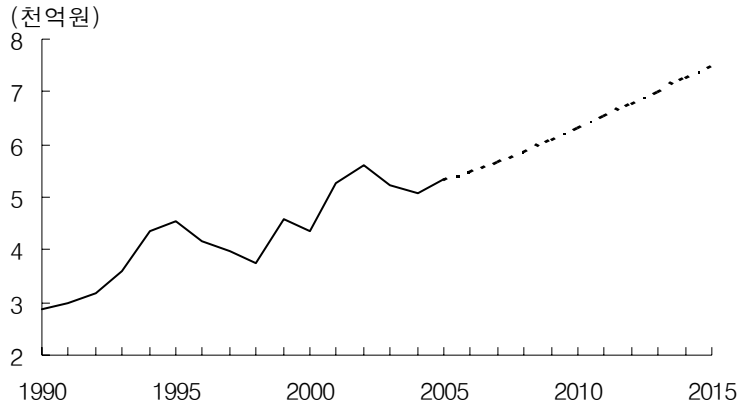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856	4,532	4,344	5,071	6,315	7,520
성장률	11.4	9.7	-0.8	3.1	3.5	3.6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lt;그림 III-14&gt;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자동차보험

앞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침투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 1인당GDP가 증가할수록 침투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GDP의 성장속도보다 자동차보험의 성장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또한 경상GDP가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자동차 혼잡도가 높을 경우 추가적인 자동차보험소비는 증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내 시계열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는 자동차보유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되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전체 보유 자동차의 경상 가치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1998년 이후 가격자율화가 시행되어 경쟁의 심화로 인한 보험료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보정하였다.

$$\log(\text{자동차보험료})_t = 0.29 + 0.74\log(\text{자동차보유대수} \times \text{CPI})_t - 0.15\text{가격자율화더미}$$

(0.19) (9.90) (식Ⅲ-5)

(-3.08)

$$R^2 = 0.9960 \quad \rho = 0.662 \quad \text{D.W.} = 2.32$$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rho$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설정된 모형의 설명력( $R^2$ )은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모형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토론을 거쳐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대한 견해를 추가로 반영하여 중장기 전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자동차보험은 연평균 3.5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동차보험의 성장률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전망,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의 영향 등으로 FY2015에 3.1%, FY2010에 4.2%의 성장이 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는 OECD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등록대수가 1,500만대를 돌파하면서 과거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FY2010에 2.2%, FY2015에 1.2%로 전망되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FY2005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참여하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 따라서, 이는 자동차보험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자보시장의 점유율이 전망되었고, 동 시장의 가격인하 효과를 감안하여 전체 자동차보험 규모를 전망하였다. 즉, FY2004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6.9%를 점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보시장은 2009년 약 15%, 2015년에는 약 2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온라인 상품이 평균 10% 가량 저렴하다고 가정하여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를 전망하였다<sup>36)</sup>. 전망 결과, FY2010 및 FY2015에 자동차보험 보험료 성장은 온라인 자보시장을 감안하지 않았

36)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오프라인 상품보다 10~15% 가량 저렴하다.

을 경우에 비하여 약 1%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동차보험은 시장의 포화상태, 온라인 자보시장의 확대 등에 따른 가격경쟁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차량의 고급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향후 10년간 증가율은 낮지만 꾸준한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표 III-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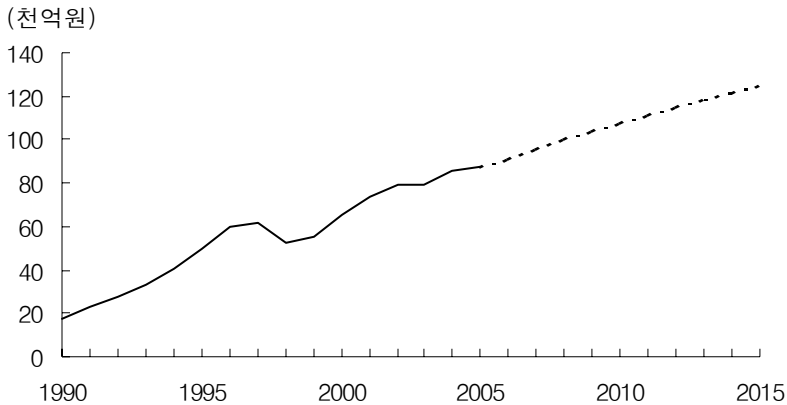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17,729	50,103	64,983	85,208	107,911	125,410
성장률	31.1	23.1	5.3	5.6	4.2	3.1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보증보험

선진국 시장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증보험은 취급하는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형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전적으로 선택된 변수를 포함하여 국내 시계열에 적합시켜 본 결과 경상 GDP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고 추정과정에서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보정하였다.

$$\log(\text{보증보험료})_t = 5.36 + 0.61\log(\text{경상 GDP})_t + 0.68(97\text{년 더미}) \quad (\text{식 III-6})$$

(1.76) (2.68) (6.80)

$$R^2 = 0.9395 \quad \rho = 0.567 \quad \text{D.W.} = 1.199$$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rho$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보증보험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의 설명력도 90%를 상회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망을 실시한 결과 보증보험은 FY2005~FY2015까지 향후 10년간 연평균 3.43%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보증보험 산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보증보험의 성장률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행보증보험, 신용보증, 개인의 금융성 상품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건설투자 환경도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을 중심으로 보증보험 성장률도 둔화될 전망이다.

&lt;표 III-9&gt;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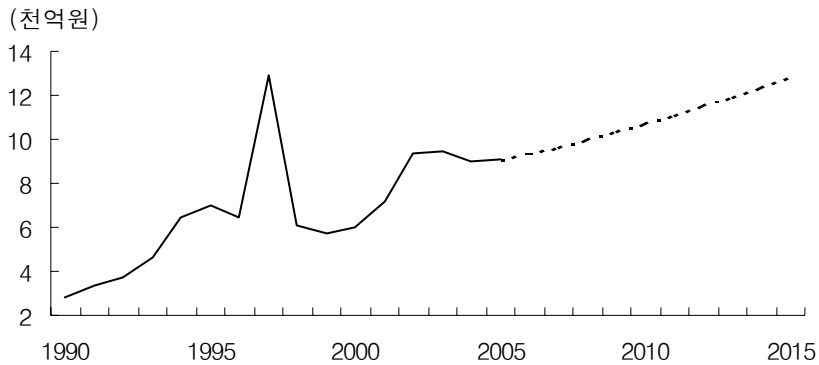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853	7,002	6,021	9,018	10,717	12,781
성장률	43.5	19.7	-3.0	8.4	3.3	3.6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lt;그림 III-16&gt;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마) 특종보험

국내 특종보험의 경우 OECD 통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분류체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경상GDP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OECD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 질병보험의 경우 의료비지출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적합한 아래의 (식III-7)



의 모형에서와 같이 경상GDP와 총의료비지출은 보험료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모형의 설명력( $R^2$ )도 99%를 상회하였다.

$$\log(\text{특종보험료})_t = -8.24 + 0.82\log(\text{경상GDP})_t + 0.66(\text{총의료비지출}) \quad (\text{식III-7})$$

(-14.34) (3.44) (3.18)

$$R^2 = 0.9951 \quad D.W. = 1.156$$

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상기의 모형에 앞서 예측된 GDP와 의료비지출을 대입하여 특종보험료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11.09%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종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함께 GDP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종목으로서 침투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부 종목별로 고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주5일근무제 정착 등으로 상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보험은 고객의 패키지 선호 경향, 화재보험으로부터의 수요 이전, 방카슈랑스를 통한 기업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여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국제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을 예정에 두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의 경우 특종보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특종보험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13년 2,100억원으로 증가하고, 풍수해보험은 현행 정부지원 대상 전체 사유시설물로 담보대상이 확대될 경우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37)</sup>. 이러한 재해 관련 보험들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수익성은 불투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7) 보험개발원,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전략』, CEO Report 2004-11, 2004. 9.

&lt;표 III-10&gt;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108	6,071	11,143	21,180	39,879	67,342
성장률	11.5	23.6	12.9	13.7	11.1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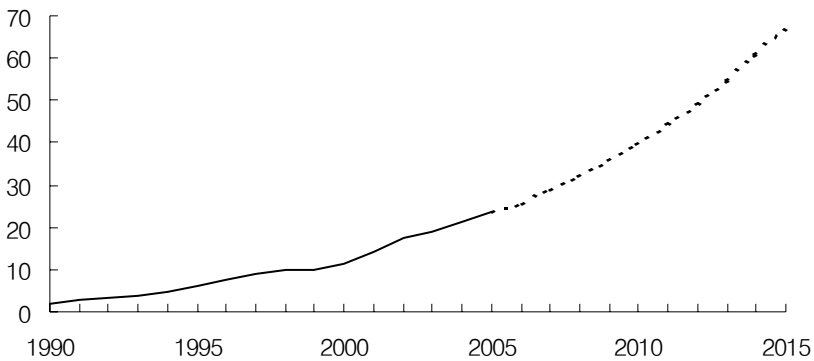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lt;그림 III-17&gt;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천억원)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바) 장기손해보험

국내의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재물성, 운전자 등이 포함되나 이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민간의료비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비의 과대 증감에 따라 장기손해보험료의 예측값이 지나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와 당해 연도 민간의료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계

열 추이의 분포를 관찰한 결과 1994년도 이후에 장기손해보험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추정과정에서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보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모형을 설정한 결과 설명력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g(\text{장기손해보험료})_t = -10.66 + 1.60\log(\text{직전및당해년도 민간의료비의 평균})_t$$

(-2.57) (6.35)

-0.20 (94년 더미) (식Ⅲ-8)  
(-2.35)

$$R^2 = 0.9884 \quad \rho = 0.573 \quad D.W. = 1.452$$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rho$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설정된 모형을 통해 예측을 실시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향후 손해보험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중목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FY2005~FY2015까지 연평균 8.9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손해보험은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부양비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서 고령화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어 평균수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는 점차 사망리스크는 감소하고 생존리스크는 증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노인부양비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정착되면서 은행을 통한 장기저축성보험의 판매도 안정될 것이며, 보장성보험의 판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은 경상GDP 성장보다 빠른 추세로 성장하면서 당분간 손해보험 산업에서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lt;표 III-11&gt;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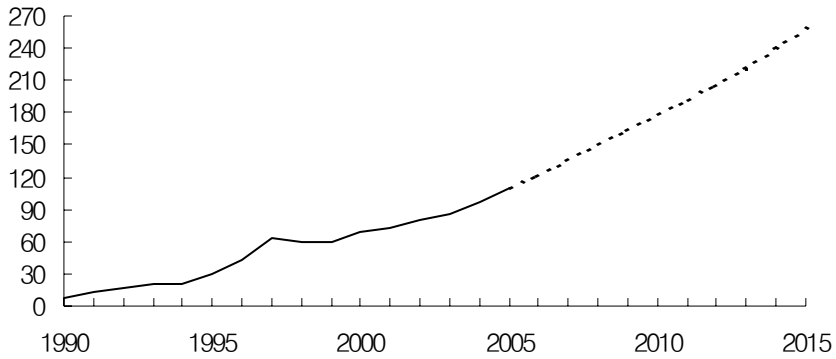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8,136	30,592	69,361	96,353	178,072	259,667
성장률	46.4	30.3	17.8	6.8	10.0	7.8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lt;그림 III-18&gt;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천억원)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전망 종합

### 1) 수입보험료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저축/투자형 상품, 은퇴 대비의 수요, 건강 관련 상품 수요의 확대와 재난 등 부보대상의 확대에 의하여 전반

우리나라 보험산업 주요지표 중장기 전망101

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FY2010까지는 생명보험이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확대에 의하여 손해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FY2010 이후에는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확대가 예상되어 손해보험의 증가 추세가 생명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FY2010 98.7조원, FY2015 133.6조원의 수입보험료를 나타낼 전망이며 5년 평균 성장률은 FY2010까지 10.1%, FY2015까지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FY2010과 FY2015에 각각 37.3조원, 51.3조원의 수입보험료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5년 평균 성장률은 8.0%, 6.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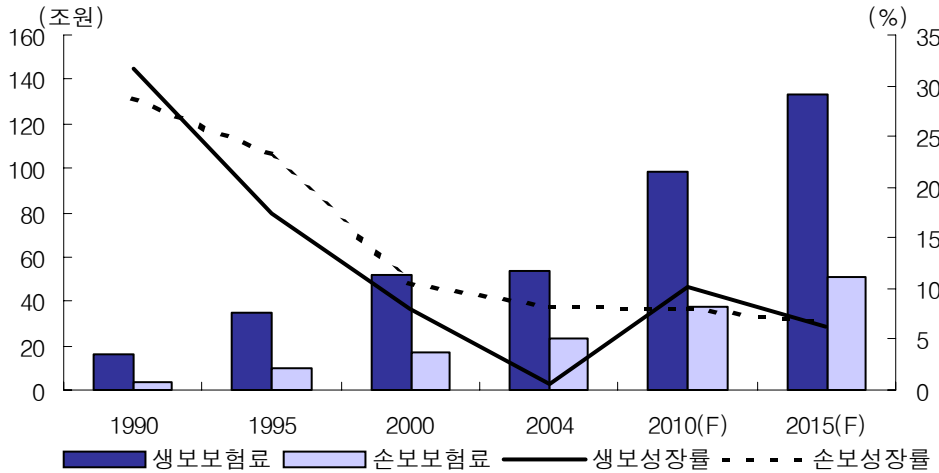
<표 III-12>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15.8 (31.7)	35.3 (17.5)	52.1 (8.1)	53.8 (0.6)	98.7 (10.1)	133.6 (6.2)
손해보험	3.6 (28.8)	10.2 (23.2)	16.9 (10.6)	23.2 (8.3)	37.3 (8.0)	51.3 (6.6)
전체	19.4 (31.1)	45.5 (19.0)	69.0 (8.3)	77.0 (2.2)	136.0 (9.5)	184.9 (6.3)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lt;그림 III-19&gt;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보험침투도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FY2010에는 12.0%, FY2015에는 12.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종목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FY2010과 FY2015의 보험침투도가 FY2004 대비 1.8%p, 2.0%p 상승하여 8.7%, 8.9%를 각각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FY2010, FY2015에 보험침투도가 3.3%, 3.4%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lt;표 III-13&gt; 연도별 보험침투도 추이

(단위 :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8.4	8.8	9.0	6.9	8.7	8.9
손해보험	1.9	2.7	2.9	3.0	3.3	3.4
전체	10.4	11.6	11.9	9.9	12.0	12.3

### 3) 1인당 보험료

FY2010의 국민 1인당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276만 4천원 정도로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생명보험 보험료는 200만 5천원, 손해보험의 1인당 보험료는 75.9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인당 보험료의 꾸준한 상승세는 FY2010 이후에도 계속되어 FY2015년에는 371만 2천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FY201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인당 보험료는 각각 268만 2천원과 103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4>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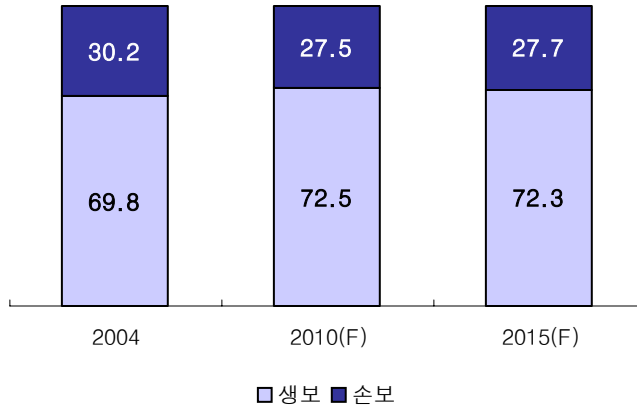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368	783	1,109	1,118	2,005	2,682
손해보험	84	242	359	483	759	1,030
전체	452	1,025	1,467	1,601	2,764	3,712

### 4) 생·손보 구성비

FY2010년 생·손보 구성비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FY2004보다 2.7%p 증가한 72.5%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FY2010 이후에는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의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FY2015에는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FY2010 27.5%에서 2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t;그림 III-20&gt; 생·손보 구성비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5) 생·손보 자산

이 보고서는 자산 규모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보험료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자산의 규모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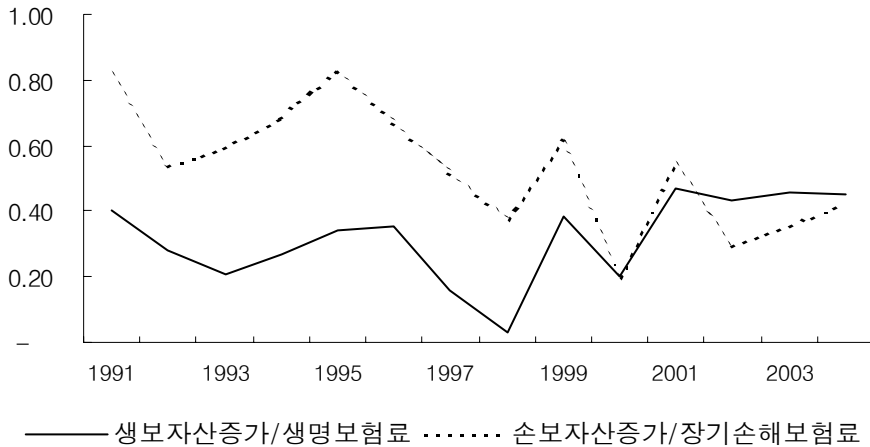
논의 방법은 자산 증가의 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자산증가 규모와 보험료 사이의 간단한 관계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향후 추이를 추계해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 장기성보험의 부채라는 점에 착안하여 생명보험은 전체보험료를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를 바탕으로 자산증가를 파악했다.

<그림 III-21>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장기보험료 대비 자산 증가비율의 추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의 추이는 대략 평균 0.4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 전망치의 약 45%가 자산 증가로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산업 전체 자산규모는 2004년 255



조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509조원, 그리고 2015년에는 83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생/손보간의 자산 규모비는 생명보험 전체 및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이 모두 빠른 성장을 하는 관계로 5:1의 비중이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1> 보험료 대비 자산 증가 추이



<표 III-15> 보험산업 자산 규모 시나리오

(단위: 조원)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31.00	69.68	120.74	211.61	423.49	694.92
손해보험	4.84	12.71	28.05	43.20	85.58	143.27
전체	35.84	82.39	148.78	254.81	509.07	838.19
손보/생보	0.16	0.18	0.23	0.20	0.20	0.21